

예림이와 예진어머니의 유학 정착이야기



“저는 대전에서 2007년 1월 27일날 크라이스트처치에 딸 아이 둘을 데리고 유학을 왔습니다. 큰 아이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때 온 것이고 작은 아이는 6학년을 마치고 막 왔습니다. 유학은 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분이 믿고 신뢰할수 있으며 경험이 많고 크라이스트처치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첫날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은 이곳의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에 비해 친절하며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영어도 많이 늘었으며 이 곳에 온지 4개월이 된 지금 저는 유학 온 엄마들도 많이 알게되었고 일주일에 2번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진이는 이곳 Intermediate School 의 Year 8 을 다니고 있습니다.
반 아들에게 인기가 많은 예진이는 학교 생활을 너무 재미있어합니다.
예진이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트볼 팀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며 바쁘고 즐거운 일과를 보냅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플루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따로 과외를 많이 시킬 필요가 없는 점이 뉴질랜드 학교의 장점입니다.



예림이는 크라이스트처치 부촌학군에 위치한 케시미어 하이스쿨 Year 9 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뛰어난 학생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예림이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영어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운동으로는 수영과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